

노조·지역이 한국지엠 법인 분리 저지 나서

카허 카셈, 사장실서 ‘나 홀로 주총’ 열고 의결...한국지엠지부, 교섭 거부 때 총파업 불사

한국지엠 카허 카셈 사장이 사장실에서 ‘나 홀로 주주총회’ 열고 법인 분리를 의결한 가운데, 금속노조 한국지엠지부가 본격 법인 분리 철회 투쟁에 나섰다.

지엠지부와 시민사회 단체들은 한국 자동차 산업과 노동자 생존권을 지키기 위해 총파업을 포함한 총력투쟁을 선언했다.

인천시는 한국지엠에 50년간 무상임대한 청라 연구소 부지 회수를 위한 법률 검토에 들어갔다.

금속노조 한국지엠지부와 시민사회 단체들은 10월 31일 인천 부평역 앞에서 ‘한국지엠 분리 저지를 위한 인천지역 1차 결의대회’를 열었다. 대회에 앞서 지부 조합원들은 부평공장에서 부평역까지 행진하며 법인 분리 저지 투쟁에 인천시민이 지지와 연대를 보내달라고 호소했다.

지엠지부는 “한국지엠 법인 분리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구조조정과 이후 한국공장 철수를 위해 노조를 무력화하기 위한 준비”라며 강력하게 규탄했다.

신승민 노조 수석부위원장은 대회사에서 “금속노조는 나 홀로 주총을 통한 법인 분리를 절대 인정하지



않겠다. 금속노조가 앞장서 자동차 산업과 노동자 생존권을 지켜내겠다”라고 결의했다.

이인화 민주노총 인천지역본부장은 대회사를 통해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의원은 법인 분리를 막으려는 노조 노력을 뒤에서 방해했다. 반드시 책임을 묻겠다”라고 경고했다.

두대선 노조 인천지부장은 투쟁사에서 “문재인 정부와 산업은행은 한국지엠에 반쪽짜리 경영 실사를 하고 8천 100억 원 지원을 내주며 경영정상화에 합의했다고 한다. 하지만 한국지엠은 합의서 잉크가 마르기 전에 법인 분리를 강행했다”라며 지엠의 뻔뻔함과 문재인 정부, 산업은행의 무능을 질타했다.

임한택 한국지엠 지부장은 투쟁선언문을 발표하며 “일개 기업이 한 국가의 기간산업을 우습게 보고 있

다. 정부는 말 한마디 제대로 못 하며 벌벌 떨고 있다”라고 분노했다. 임한택 지부장은 “한국지엠 사측에 여덟 차례나 교섭을 요구했지만, 대화에 응하지 않고 있다. 만약 이번 주까지 교섭에 나오지 않으면 총파업투쟁을 불사하겠다”라고 선언

했다.

지난 10월 19일 한국지엠은 개최 장소도 밝히지 않은 채 카허 카셈 한국지엠 사장 혼자 사장실에서 ‘나 홀로 주총’을 열었다. 카허 카셈 사장 혼자서 개회를 선언하고 ‘연구·개발법인 분리’ 안건을 상정하고 의결했다. 한국지엠 사측은 노조 반발을 핑계로 2대 주주인 산업은행의 주총 참가를 사실상 막았다.

이에 앞서 한국지엠은 8천 100억 원의 지원을 대가로 경영정상화에 합의한 지 100일도 안 된 7월 20일 ‘법인 분리’를 노조에 일방 통보했다. 지엠지부는 법인 분리는 ‘글로벌지엠의 특기인 먹튀를 위한 사전준비 작업’이라며 총파업 투쟁 등 모든 힘을 다해 막겠다고 선언했다.

악덕 사업주와 ‘더불어’ 민주당

노조 서울지부, 투쟁사업장 문제해결 촉구·한노위 의원들에 투쟁사업장 맡겨 해결 노력 약속 깨

집권 여당 더불어민주당(아래 민주당)이 금속노조 서울지부 투쟁사업장 여성 노동자들을 외면했다. 민주당은 노동자를 해고하고 인권을 짓밟은 부당노동행위 사업주들에게 사실상 면죄부를 줬다.

금속노조 서울지부는 10월 30일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사 앞에서 ‘노동 적폐 청산, 재벌 갑질, 사장 갑질 근절 금속노조 서울지부 투쟁사업장 문제 해결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지부는 민주당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투쟁사업장을 맡도록해 문제 해결에 노력하겠다는 약속을 깬다”라고 성토했다.

노조 서울지부는 “문제인 정부와 민주당은 노동자의 빈곤한 삶과 불안정한 고용, 약자의 설움을 끝내야 한다는 임무가 있음을 잊지말라”라며 투쟁사업장 문제 해결을 다시 촉구했다.

정찬희 노조 서울지부 부지부장은 기자회견을 시작하며 “민주당에게 같이 문제를 해결해보자 제안했지만 국정감사가 시작되자 꿈무늬를 뺐다. 이런 민주당이 말하는 노동존중은 믿을 수 없다”라고 비판했다.

서다윗 서울지부 남부지역지회장은 국정감사 상황을 보고하며 “민주당이 한 약속을 믿고 밤을 새워가

며 국정감사를 성실히 준비했다. 민주당은 피해자인 투쟁사업장 노동자의 진술만 들었다. 책임져야 할 사장들은 단 한 명도 국감에 나오지 않았다”라며 분노했다.

지난 9월 서울지부는 민주당에 “최저임금 여성 노동자들의 권리 보호에 집권당으로서 책임지고 나서라”라고 요구했다. 민주당은 “국회 한노위 소속 국회의원들을 투쟁사업장에 배정해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약속했다. 민주당은 레이테크코리아에 이용득 의원을, 성진씨에스에 전현희 의원, 신영프레스전에 송옥주 의원을 배정했다.

국회가 국정감사를 시작했지만, 민주당은 문제 해결을 위한 최소한의 노력조차 하지 않았다. 신영프레스전 신창석 회장은 골프장에 투자하고 적자를 이유로 수십 년간 일한 노동자들을 하루아침에 해고했다. 신창석 회장은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되자 심장부정맥과 우울증을 핑계로 불출석을 요청했고 민주당은 이를 받아들였다. 신창석 회장은 얼마 전까지만 해도 향우회에 참석해 노래를 부르고 골프 대회도 주최했다.

현대자동차에 자동차 시트커버를 납품하는 성진씨에스는

최저임금이 오르자 임금을 삭감했다. 비용을 절감한다며 쉬는 시간에 여성 노동자들에게 화장실 청소를 시켰다. 이에 항의하며 노조에 가입하자 회사는 위장폐업했다. 현대차와 원청인 코오롱글로벌은 증인으로 나오지 않았고, 민주당은 국감 직전 코오롱글로벌에 대한 질문조차 뺐다.

노동부가 근골격계 우려가 있다며 작업환경 시정지시를 내렸지만, 레이테크 여성 노동자들은 입에 담기 힘든 폭언 속에 여전히 바닥에 앉아 포장업무를 하고 있다. 이용득 의원은 레이테크지회에 아무런 연락을 하지 않았다.

이희태 신영프레스전분회장은 기자회견을 마무리하며 “민주당은 고통받는 노동자의 뒤통수를 치고 우롱했다. 이제 적폐 청산의 주체는 민주당이 아니라 노동자이다. 민주당은 청산 대상에 민주당도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한다”라고 일갈했다.